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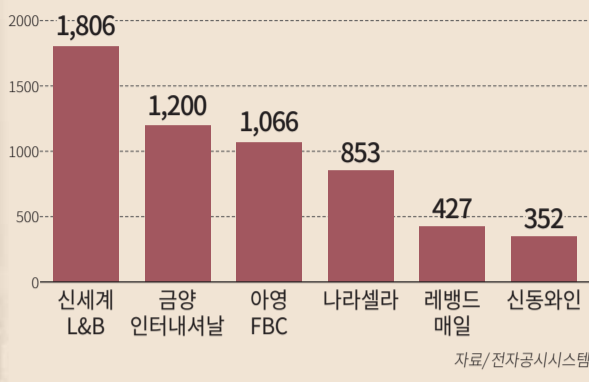
엔데믹에 줄줄이 적자... 시름하는 와인업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2023년 주요와인 수입사 매출 단위: 억원



민와인' 몬테스를 수입하는 나라셀라는 작년 매출액 853억2500만원으로 업계 4위다. 전년 대비 20%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98% 급감한 1억9600만원이며, 15억5900만원 순손실을 냈다.

나라셀라는 "엔데믹 이후 경기침체, 흡술(Home+술) 감소에 따른 국내 와인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며 "영업이익은 수요감소에 따른 판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실적 부진을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나라셀라는 "최근 엔데믹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와 맥주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해 시장 성장률이 다소 정체됐지만 2022년 기준 한국의 인당 와인소비량은 1.9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며 "향후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뱅드매일의 작년 실적은 매출 427억 1100만원, 영업손실 24억5800만원, 순손실 27억8500만원이다. 신동와인은 작년 매출 352억2100만원, 영업손실 4억6300만원, 순손실 8800만원이다.

/smahnl@metroseoul.co.kr

산이 높았던 만큼 골도 깊었다. 팬데믹이 몰고온 와인 열풍이 지나가니 우후죽순 생겼던 와인바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수입업자들은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도 힘든 상황이 됐다. 줄어든 소비도 소비지만 환율은 치솟고 인플레이션 타격까지 겹쳤다. 대형사들도 매출이 줄어든 것은 기본이고 적자로 돌아선 곳들도 속속 나왔다. 작년은 공격이 아닌 방어가 관건인 한 해였던 셈이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와인 수입사들의 작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와인을 팔긴 팔았는데 남는게 별로 없었다. 아니 손해를 보면서 팔기도 했다. 매출은 적당히 방어했는데 적자를 낸 걸 보면 말이다. 세상에 3대 거짓말 중 하나가 장사꾼이 "말지고 판다"라고 하던데 국내 와인 시장은 그걸 진실로 만들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와인 수입사 가운데 매출 1위는 신세계L&B로

1806억3500만원이다. 3년 만에 매출이 2000억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지만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 등 관계사 매출 비중이 높아 그런지 10% 안팎 감소에 그쳤다.

그렇다고 실속까지 챙길 순 없었다. 영업이익은 2022년 116억3300만원에서 작년 7억 2200만원으로 급감했고, 당기순손실 53억 3700만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줄었는데 매출원가나 판매비는 크게 변동이 없었던 반면 비용은 오히려 더 늘면서다.

매출 2위는 칠레와인 '1865'를 수입하는 금양인터내셔널로 120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15% 가량이다. 영업이익 56억8700만원, 순이익

43억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0%씩 안팎으로 줄었지만 다른 수입사들 대비 양호했다. 금양인터내셔널 역시 매출원가와 판매비 부담이 있었지만 2022년과 달리 관계기업 투자이익 등 영업 외 이익이 도움이 됐다.

이탈리아 안티노리 와인을 수입하는 아영FBC 매출은 1066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지만 1000억원대는 지켜냈다. 영업이익 30억4600만원, 순이익 34억 600만원으로 각각 63%, 19% 감소에 그쳤다. 지분법 이익 등 영업 외 수익이 방패막이 됐다.

와인 수입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로 '국

주말은 책과 함께

프랑스에서의 공연, 풍경, 사람의 기록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은 공연예술이론가 목정원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프랑스에 살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두 해 반을 더 보내면서 품었던 이야기들을 다룬 책이다. 보았던 무대, 걸었던 풍경, 만났던 사람, 못 지킨 죽음, 읽었던 말들과 불렀던 노래가 담겨 있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프랑스에 간 첫해 들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몸과 목소리 사용하기' 수업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가 수업을 하러 강의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상과 의자를 치워 공간을 비운 뒤, 그 장소를 인식하는 일이었다.

저자는 "가만히 서서 공간을 감각하는 일. 이제 곧 이야기가 변질, 나의 목소리가 울려나올 그곳. 이때 공간을 감각한다는 것은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잊지 않는 일이다"며 "내가 여기 있어" 그것을 느끼는 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천천히 두리번거리며 공간 속을 걷다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눈짓으로 인사하고, 아무와도 부딪치지 않은 채로 각자가 바닥에 보이지 않는 곡선을 그린다. 편재하는 공간을 몸으로 익히는 동안 그 속에서 무수히 많은 새로운 공간의 결들이 발생한다.

하염없이 공간을 걷던 사람들은 박수소리를 신호로 돌씩 짚지어 허공에서 눈길을 엮는다. 저자는 "서로의 눈만을 응시한 채 계속 걷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선을 열어 주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목정원 지음/아침달

변을 인지해야지만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을 수 있다. 응시하는 시야와 산만해지는 외연이 함께 춤춘다"며 "다시 박수소리가 들리면 다른 이와 짝을 이루고, 나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가 끝없이 변화해간다"고 말한다.

하염없는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몸의 감각을 익히며, 그는 외롭고 따뜻해진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자는 떠나기 위해, 혹은 무언가를 떠나보내기 위해 공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배웠다고. 만일 누군가 파리에서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공간 속에 서거나 앉거나 누워 세계를 전부 감각했으므로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 몸을 마침내 연마할 수 있게 됐다 답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188쪽. 1만8600원.
/김현정 기자 hjk1@

워크는 좌파가 아니다

'깨어 있으면(stay woke)' 좌파일까. 도덕철학자인 저자는 '워크(woke)'라는 낯선 수식어를 단 이들과 본래의 좌파는, 그들이 형성하고 실천으로 이끄는 지적 뿌리와 자원이 서로 다르기에 한데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책은 워크의 실천과 담론의 밑바탕에 자리한 이론이 모든 좌파적 입장에서 핵심

이 되는 철학적 사상과 충돌한다는 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국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의 지향, 정의와 권력의 확고한 구별, 진보의 가능성에 관한 강력한 믿음이 그것이다. 저자는 보편주의, 진보, 정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워크는 좌파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296쪽. 1만9000원.

수전 니먼 지음/홍기빈 옮김/생각의힘



온라인 여론과 SNS

여론이란 무엇이고, 여론 지도자는 어떤 인물일까. 오늘날 온라인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온라인 여론과 SNS'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주는 책이다.

책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이 조성되는 방식과, SNS를 비

롯한 소셜 미디어가 여론 형성 과정에서 공중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한국 사회의 다원화된 여론 형성 주체와 소셜 미디어 상의 여론 형성 과정을 훑어본다. 저자는 여론의 허상을 꿰뚫고 디지털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과 SNS의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여론의 실체를 분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68쪽. 2만원.

설진아 지음/컬처북



샤프 펜슬에 뭘 짓을 한 거야?

신정설 지음/지식노마드

공학 덕후인 저자의 눈에 샤프는 하나의 '세계'다. 샤프는 작고 좁은 몸통 안에서 특수하고 복잡한 여러 기능을 매끄럽게 구현해 낸다. 책은 샤프에 장착된 기능과 그 기계적 원리를 다룬다.

슬리브가 선단부 안으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슬리브, 필기 시 샤프심이 자동 배출

되는 오토매틱 기능, 샤프심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쿠루토가 엔진, 샤프심 배출량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 기능, 금속 그림부의 미끄럼을 완화하는 널링(롤렛) 가공 등이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국내 최초 샤프 펜슬 탐구서.

496쪽. 2만5000원.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더 강해진 美日동맹... "중패권·트럼프 당선 위기감이 양 정상 움직여"
▲미 중부군 사령관, 이스라엘과 이란 보복 공격 대비방안 논의 /사진 뉴시스

▲中언론 "한국 여당 총선실패로尹정부 레임덕 직면"
▲총선 결과 관련 日정부 "한국과 긴밀 의사소통"



▲3월 日 통화공급량 1596조엔·1.8% ↑ ... "사상 2번째 고수준"
▲유럽연합 의회, 불법이민 입국 막는 새 이민·귀화 조약 통과 /사진 뉴시스